

“건전한 청소년환경 만들자”

청소년불자들이 유해환경 조사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출입에 대해 어떤 관여조차 없는 어른들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교회연합회(이하 청소년교회) 보령·대전·인천지부, 목동청소년회관 등이 자원 봉사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교에 직접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비행예방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의 장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청교련 보령지부(지부장 정운)는 9월9일 관내 중·고등학교 3백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발족시키고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홍보와 가두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운스님은 “청소년 감시원의 지적을 받은 유해업소 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지도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청교련 대전

청소년시절·정책 제안 비행예방 거리 캠페인 사례지도 연내 발간

지부(지부장 송실)가 5월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매회 중·고등학교 1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예방 가두 캠페인’ 프로그램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



청교련 대전지부가 매일 실시하는 ‘비행예방 가두캠페인’에 참여한 대전지역 여고생들.

와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이미 8월 초 유해환경 1차 조사를 마무리 하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통계’ ‘청소년 참가기’ 등이 수록된 ‘사례집’을 제작하는 한편 △유해환경 지도 제작 △청소년 보호 정책안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사례집

은 12월경 각기 발간될 예정이다. 국선회 간사(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합치고 꾸준히 노력하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ooou@buddhapia.com)

주부신행담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④·끝

“아 버지, 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온 곳이 있으면 틀림없이 병이 사라지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하염없이 수그러 들던 아버지의 숨소리같은 어린 목소리가 “그래, 알았다” 하겠다.

그날 밤을 아버지 옆에서 새우고 싶었는데 애들 학교 보내는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토요일에 애들 다 데리고 가자. 이젠 좀 자주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으나 아버지는 그날 저녁을 잡수시고 앉아 계시다 그렇게 가셨었다. 아마 8시 4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여동생과 제부는 진통제를 시러 갔었고 큰 형부는 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앉아있던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누우신 줄 알았다고 하겠다.

그 시간 난 닭장에서 병이려 먹은 물을 큰 통에 받으면서 귀로는 물이 알만큼 받아지자 소리 신경쓰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관하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고통을 오래 받으실 바에는 빠른 시간내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순간적인 내 마음이 너무도 죄스러웠다. 시계를 봤더니 8시35분쯤이었다.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죄스럽다.

“내 빛이 이웃 기쁘게 할때까지...”



그림·문병성

4월달부터 앓기 시작해서서 불과 2개월 앓다 가신 아버지는 그 짧은 기간동안 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가셨다. 가끔씩 절에 가거나 생각하면 관음종진 좀 할 뻔하던 내가 이제는 하루 하루 수행정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침에 불교방송 예불문을 틀어 놓고 108배를 시작하며 경전공부를 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하려고 ‘자비의 전파’는 상황에 따라 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 듣는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거나 신앙일기를 쓰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공부가 됨을 느낀다.

아버지의 상우제 때 먹고 버린 수박씨가 가을날 산기슭에 7개의 수박으로 주렁주렁 달렸다. 평소에도 1남6녀를 위한 기도를 늘 하시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7이란 숫자. 사십구제 때 7주에 한번 수박을 헌당익씩 꼭꼭 가져갔는데 그것도 7개였음이 우연치고는 오묘한 우연이 아닌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깊은 산 속에 한둘의 수박씨가 큰 수박이 되었음을 볼 때 문득 저번에 먹은 수박과 그 씨앗에서 열린 큰 수박에서도 큰 의미를 되짚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연인 듯 싶은 저절로 자라는 풀 한포기에서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풀 한포기, 지저귀는 산새 한 마리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을까?

삶은 하나하나 화두이며 공부의 재료이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당황할 필요없고 좋은 일이 오고도 자랑스러워 할 필요 없다. 내가 빛나서 나의 빛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의 거울을 닦고 싶다.

주위의 인연이여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에 제일로 감사드리고 싶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을 생곡동>

머벌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종교벽 허문 화합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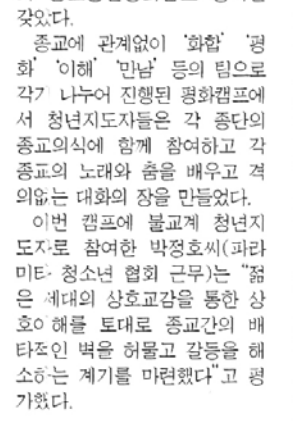
6대종교 ‘평화캠프’

우리나라 각 종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지도자들이 속익을 함께하며 화합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봉은) 회원종단인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단을 대표하는 청년 60여명이 17~19일 경기도 의정부 다락원캠프장에서 제1회 종교청년평화캠프 행사를 갖는다.

종교에 관계없이 ‘화합’ ‘평화’ ‘이해’ ‘민남’ 등의 팀으로 각기 나누어 진행된 평화캠프에서 청년지도자들은 각 종단의 종교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각 종교의 노래와 춤을 배우고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캠프에 불교계 청년지도자로 참여한 박정호씨(파리미트·청소년 협회 근무)는 “젊은 세대의 상호교감을 통한 상호이해를 토대로 종교간의 배타적인 벽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KBS 특수촬영팀에 의해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된 신계사 대웅전.

금강산 신계사 그래픽 복원

K-1TV 국내 최초 방영 원성스님 티벳생활 소개 K-2TV '도전지구탐험대'

한국전쟁때 소실된 금강산 4대 사찰중의 하나인 신계사가 3차원 그래픽으로 복원돼 국내최초로 안방극장에 선보였다. KBS-1TV는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미니어체(소형 모형)를 특수촬영해 제작한 특별기획 ‘금강산’을 23일 밤 10시35분부터 60분간 방영했다.

소설가 고원정씨가 금강산 길라잡이를 맡아 내금강 장안사를 시작으로 만복동과 비로봉, 외금강의 옥류동, 만물상 등 금강산 곳곳의 절경을 안내했다.

티베트 라다크지역의 해미스 사원에서 매년 7월 5·6일 양일간 열리는 전통불교축제의 탈춤 공연에 동승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종양승가대4)이 도전장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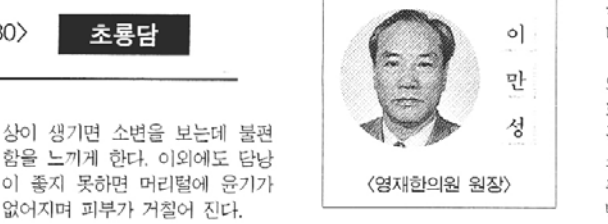
KBS-2TV는 원성스님이 해미스 사원에서 라마승려들과 생활하며 수행하는 과정과 ‘해미스 축제’의 탈춤 공연에 참여기 위해 티베트의 전통춤을 익히는 모습 등을 조명한 ‘도전지구탐험대’를 9월6일 오전 9시40분부터 오전11시까지 80분간 방영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건강 365일 <30> 초롱담

골다초라고도 하는 초롱담은 신경통에 좋다하여 민간요법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약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담낭(쓸개)의 기운을 돌아 주는 풀이란 뜻이다. 담낭은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잘 보호해야 한다. 담낭이 허약하면 잘 놀래고 심장이 자주 뛰며 잠을 잘 못잔다.

또 담낭에 풍기운이 들어가면 편두통(쪽골)이라 해 한 쪽 골치가 자주 아프며 입맛이 없다. 담낭에 열이 들어가도 목구멍이 자주 붓고 축농증이 생긴다. 담낭은 방광과 유기적인 관계도 있어 이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쓸개 보호 담력 길러주는 약초 초롱담 8g에 감초 4g 넣고 달여

담낭이 약해지면 결단력이 부족해져 무슨일에건 갈팡질팡 망설여진다. 또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흔히 어른들이 겁이 많고 배짱이 없는 아이들에게 “지렁이 담력이 약해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얘기하는 것을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담낭이 쇠약해져 일어나는 증상이다.

담낭은 우리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담낭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

어져 견비동(어깨통증), 좌골신경통, 무릎관절 신경통 등이 발생한다.

담에서 분비되는 담즙도 소화액의 작용을 하는 등 중요하다. 소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담즙이 분비가 안되면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불량이 일어난다. 담즙은 섭취한 지방을 분해시키기도 한다. 만일 이때 섭취한 지방을 분해시키지 못하면 간장에 지방이 축적돼 지방간이란 병을 얻게된다. 지방간은 근육조직에 기름기가 분해되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만성피로와 특히 여성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와같이 인체에서 중요한 담낭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는데 초롱담은 좋은 효과를 낸다. 초롱담 8g,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02)762-5510

석용산 스님 대법회!

수필집 『진짜 나와 가짜 나』, 시집 『우리님 높으시어 지옥극락 하나됐네』 출판 기념

모시는 글
최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고 포교활동을 계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중 보여 주셨던 여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첫째날 (강연 및 정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둘째날, 셋째날 (강연회)
• 일시: 1998년 9월 18(금), 19일(토) 오후 2시(이튿날)
• 장소: 부산공덕원 대법당(영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051)625-2253, 2254 FAX: (051)623-3946

대구
• 일시: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대구 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053)741-0077, 0088
FAX: (053)741-0066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임직원 일동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부산, 대구, 아산, 인니, 미국, 제자 일동

왜, 침묵했는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석용산 에세이 | 신국권 350면 | 값 8,000원
석용산 시집 | 304쪽 | 값 5,5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7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석용산 스님의 최근 모습